

美 주정부, 데이터센터 건설 제동 K-배터리 ESS 사업확장 ‘적신호’

美 지역사회 데이터센터 건설 반발
관련 전력 인프라 투자 지연 가능성
업계, 반대 움직임·정책 변화 주시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의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되면 관련 전력 인프라 투자와 ESS 발주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지역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규모 전력 소비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냉각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수와 소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유치가 따른 경제적 효과보다 지역 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정부도 데이터센터 개발에 제동을 걸고 있다. 텍사스주는 전력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신규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연결 승인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펜실베이니

아주는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기요금과 환경 보호, 지역사회 협의 등에 관한 기준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에는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고 AI 데이터센터를 신속 인허가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연산 장비를 가동해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데다 작업량에 따라 전력 수요도 빠르게 달라진다. 전력 사용량이 단기간에 크게 늘면 지역 전력망의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전력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충전한 뒤 수요가 증가할 때 전력을 공급하는 ESS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되거나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전력 인프라 투자와 ESS 수요 증가 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북미 생산설비 일부를 ESS 용으로 전환하며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늘어나는 ESS 수요를 확보해 생산설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ESS 시스템

통합 법인 베테크를 통해 현지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전기차배터리 생산시설 일부도 ESS용으로 전환해 북미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SDI는 미국 에너지기업들과 ESS 용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다. SK온도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ESS 용으로 전환하는 등 북미 ESS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국내 배터리 기업이 공략하는 북미 ESS 시장의 주요 수요처 가운데 하나다. 지역사회 반발과 주정부의 규제 조치로 데이터센터 건설 일정이 늦어지면 관련 ESS 발주와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증설을 둘러싼 현지의 반대 움직임과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며 “전력망 안정화와 재생에너지 연계 사업의 수요도 함께 늘고 있어 데이터센터 사업의 지연이 전체 ESS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지난 29일, 서울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화 우주 컨퍼런스(Space, with us)’에서 정의훈 우주 전문 애널리스트가 강연을 하고 있다.

/한화

“우주산업 이끌 ‘한국판 스페이스X’ 필요”

한화 우주 컨퍼런스

국내 우주산업 현황·비전 공유

한화그룹이 우주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우주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발사체·위성·인공지능(AI)을 아우르는 민간 주도 우주 생태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한화 우주 컨퍼런스(Space, with us)’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주가 인류의 새로운 기회이자 미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 우주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과 인문학,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에서 우주의 의미와 미래를 살펴보는 강연이 이어졌다.

컨퍼런스에는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와전은지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정의훈 우주 전문 애널리스트, 조승연 작가, 지음배 천문학자가 강연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우주탐사가

인류의 역사와 산업에 미친 영향을 비롯해 우주산업의 성장으로 10년 뒤 달라질 일상과 교육 현장의 변화 등을 소개했다.

행사에서는 세계 우주산업의 중심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발사체와 위성, AI 인프라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고 국내 우주산업을 이끌 ‘한국판 스페이스X’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화그룹은 2040년까지 우주항공과 AI 산업에 총 55조원을 투자해 독자 발사체와 위성망, 국방 AI 등을 아우르는 통합 우주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위치한 경남 창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는 사전, 전남 고흥 우주센터, 제주 한화우주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에도 집중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컨퍼런스에 참여한 많은 분의 호응을 통해 우주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AI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과 미래 세대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車업계, 노사갈등 봉합… ‘신차출시·수출’ 속도

올해 임금·단체협약 마무리 수순
투싼 등 신차 예고… 판매확대 집중

국내 완성차 업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추석 전 마무리 짓고 하반기 판매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한국GM을 시작으로 KG모빌리티(KGM), 르노코리아에 이어 지난 28일 기아까지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현대차 역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로 조합원 찬반투표만 남겨둔 상태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과 부품업체 화재 등의 문제로 상반기 자동차 수출 감소세를 기록한 국내 완성차 업계가 하반기 내수·수출반등을 노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31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완성차 5개사의 올해 임단협은 모두 종료된다. 현대차가 마지막으로 임단협을 타결하면 올 여름 완성차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노

사 갈등도 종료된다.

완성차 업계는 노사간 갈등을 봉합한 만큼 본격적인 글로벌 판매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수익성과 판매 확대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부품사 화재와 노조의 파업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총 196만6267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대비 4.9% 감소한 실적으로 기록했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잇따라 신차를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판매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는 그랜저와 아반떼에 이어 투싼, GV80 하이브리드 등 주력 모델을 대거 선보인다.

올 상반기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한 기아는 노사 협력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간다. 기아는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총 163만988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상반기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기아는 올 하반기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K4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면 판매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는 신차 출시와 생산 확대로 영업이익률 6.3~7.3%, 도매판매 415만8300대라는 연초가이던스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도 전년 대비 7% 늘어난 335만대 판매를 목표로 영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견 완성차 3사는 내수 판매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수출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국GM은 전체 판매량에서 수출 물량 비중이 높은 만큼 트렉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의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갈 방침이다. 르노코리아와 KGM은 내수 경쟁력을 확보와 함께 해외 시장에서 추가 물량 확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이 이뤄진 만큼 하반기 안정적으로 신차를 출시하며 올해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성은 기자 ysw@

삼성전자, ‘플레이갤럭시 컵’ 정규리그 운영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협업

삼성전자가 모바일 게임 대회 ‘플레이갤럭시 컵’을 단발성 행사에서 글로벌 정규 리그로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독일 쾰른메세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6’에서 ‘플레이갤럭시 컵 월드 파이널’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은 플레이갤럭시 컵은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실력을 겨루는 모바일 게임 대회다. 그동안 개별 행사 중심으로 열렸지만 올해 처음 지역 예선부터 월드 파이널까지 이어지는 연간 리그로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협업해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플레이갤럭시 컵: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글로벌 오픈’을 열고 올해 리그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북미·서남아·동남아·중남미·유럽 등 5개 권역에서 예선을 진행했다.예선에는 17개국 32개 팀이 참가했다. 각 권역 상위 2개 팀씩 9개국 10개 팀이 월드 파이널에 진출해 지난 27~28일 이틀간 게임스컴에서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했다. 말레이시아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모든 선수는 갤럭시 S26 울트라로 경기를 치렀다.

삼성전자는 고성능 프로세서와 발열 제어 시스템을 앞세워 장시간 게임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포니.ai, 국내 자율주행 시장 본격 진출

퓨처링크 협력… 로봇택시 200대 도입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 포니.ai가 퓨처링크와 손잡고 한국에 7세대 로봇택시 200대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국내 차량 인증을 마친 뒤 서울을 시작으로 안전운전자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까지 선보일 계획이다.

퓨처링크와 포니.ai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전략적 협력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서울 강남에서 진행해 온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퓨처링크는 포니.ai와 약 2년간 협력 관계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1월부터 서울 강남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해 왔다. 차두원 퓨처링크 대표에 따르면 강남에서만 약 8만7000km를 주행했으며 자율주행 중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교통량이 많고 오토바이와 물류차량, 공사구간 등이 밀집한 강남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양사의 역할도 나뉜다. 포니.ai는 자율주행 기술과 차량을 공급하고 퓨처링크는 국내 차량·서비스 운영과 데이터 관리, 현지화를 맡는다. 한국 도로환경에 맞



(좌측부터)남경필 퓨처링크·포니링크 회장, 제임스 평 포니.ai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차두원 퓨처링크 대표가 MOU 체결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지협희

춘 데이터 라벨링과 지도 구축, 알고리즘 업데이트 등도 퓨처링크가 담당한다.

합작법인(JV)은 차량 인증 이후 설립할 예정이다. 양사는 국내에 들어오는 차량과 플릿 규모에 맞춰 합작법인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출자 규모와 지분율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포니.ai도 한국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할 계획이다.

남경필 퓨처링크·포니링크 회장은 “실증 단계를 지나 상용 사업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됐다”며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고령자와 장애인, 농촌 거주자 등 이동에 제약을 받는 이용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